

〈친구들과 영상통화〉

금요일, 나는 친구들과 웨이프로 영상통화를 하며 놀기도 했다. 친구들과 내가 저녁을 다 먹고, 7시쯤 시작한 것 같다. 계속 다른 방으로 초대해서 난감했지만 4명 모두 같은 방에 들어오게 되었다. 먼저 내 방 소개를 해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여러가지 게임을 하게 되었다. 먼저 악어 이빨을 뽑고 악어를 깨우는 사람이 지는 게임을 했다. 승희가 걸리기도 하고 내가 걸리기도, 두면이가 걸리기도 했는데 특히 서연이만 안 걸렸던 같다. 별칭 줄여서 돌려서 벌칙을 정했는데 나는 '인자노썸리'가 나왔다. 하지만 하지는 않았다. 다른 각자 벌칙하느라 웃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는 드로잉퀴즈를 했다. 지시어를 주고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맞추는 게임이다. 그렇게 또 재미있게 드로잉퀴즈를 했는데 다 등점이 나왔다. 이제 마피아를 했다. 마피아를 하는 데 계속 시민이나 경찰이 걸렸다. 마피아는 한번도 걸리지 않았지만 엄청 재미있었다!!!! *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손병호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편먹을 시켜서 "맛있겠지~~"라고 해서 편먹이가 났었다. 서연이는 먹먹이를 먹어야 해서 먼저 나가곤 셋이서 손병호 게임을 했다. 친구들이 나만 하당 되는 걸 해서 내가 지게 되었다. 벌칙이 걸렸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승희도 나에게 도전 두면이라 나만 남게 되어서 은목과 보보런스 게임을 했는데 은목은 내가 다이졌다! 보보런스 게임도 재미있게 한 후에 전화를 끝냈다. 정말 재미있던 영상통화였던 것 같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